



그림 5. 피크닉의 저장방법 및 기간에 따른 정도 변화

그림 5는 저장방법 및 기간에 따른 피크닉의 정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상온에서는 20일 정도까지는 품질유지가 가능하였고 저온에서는 40일까지는 식미감이 양호하였으며 1-mcp에서는 60일까지는 품질유지가 가능하였다.

이상의 결과로 국내육성 사과 신품종의 저장방법에 따른 품질은 만생종인 ‘후지’와 같이 저온저장 한계기간이 4개월 내외에서 조직감과 식미감이 양호하였고(박 등, 2006) 1-MCP 저장의 경우 8개월 이상까지 품질이 유지(박 등, 2011)되었다는 보고와 비교하여 조·중생종 품종의 경우 저장방법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장기저장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2개월 내외의 저장기간에서 품질이 유지되었다.